

2020년 4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4월 24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, 지금부터!!

- 올겨울 대비, 전국 가금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 추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최근 들어 유럽, 중국,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*하여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
 - * 전 세계 발생 현황(건) : ('17) 2,100→('18) 540→('19) 234→(20.4.23) 365
- 과거 주요 발생원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·사람, 야생조수류 등의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·소독 시설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
-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 추진
 -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4.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닭, 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(전업농 4,312호)를 단계적*으로 점검
 - * (1단계, 4.27.~7.31.) 농가 전체 점검, (2단계, 8.1.~9.25.) 방역 미흡농가 재점검
 - 전실·울타리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·홍보도 함께 실시
 - 특히,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정비·보수를 명령과 이행계획서 수령, 재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
-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
 - 농가에 대해 방역·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 운영,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의 준수 철저 등 질병차단 노력을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최근 유럽, 중국,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*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,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* 전 세계 발생 현황(건) : ('17) 2,100→('18) 540→('19) 234→(20.4.23) 365

* 우리나라는 2018.3.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음

○ 또한,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·사람,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와 관련,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협시기인 겨울철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.

○ 점검 대상은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(전업농 4,312호, '20.4월 기준)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4.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* (1단계) 4.27일부터 7.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 점검

* (2단계) 1단계 점검결과, 방역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 재점검

○ 점검반은 전실·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,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·홍보도 함께 실시한다.

○ 특히,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·소독설비 미흡

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*에 따라 정비·보수를 명령하고,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,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.

* 2020.5.5.일부터 축산농가/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, 방역기관에서 점검 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·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미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○ 또한,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더불어 전국 단위 예찰·검사, 교육·홍보,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, 지자체,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○ 아울러,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,

○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,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.